

2월의 안테나

盧永翰
(본지 편집국장)

계란, 닭고기 품질향상에 노력해야

식생활의 변화에 따라 식품산업이 크게 번창하고 있다.

83년의 경우 외형 3천억이 넘는 업체에 천억이상의 업체 수만도 7개업체나 되었다.

금년에는 서울우유, 매일우유, 한국야구르트 등 유가공업체들도 외형 1,000억을 넘어설 것이고 계란을 원료로 하는 마요네즈제조업체인 한국크노르도 100억에 42.9%의 높은 신장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였다.

외식산업체인 롯데리아도 70억에 48.9%의 신장율로 식품산업이 성장산업으로 크게 각광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금년 30개식품업체의 매출액은 3조2천3백93억원으로 GNP의 약 15%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육가공품 등의 신장율은 36% 이상인 750억원으로 목표를 잡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 신제품도 금년에는 많이 선보이고 TV선전 등 판매전이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지난해 참치통조림이 집중적인 상표선전을 통해서 성공한 것을 보았으며 닭고기나

제란도 광고여하에 따라서 소비가 크게 신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았다. 그러나 소비확대를 위한 광고보다도 생산자들이 먼저 할일은 품질의 고급화와 생산비의 절감이다.

1월 30일 주부교실중앙회 주최의 국산품이 외래품 소비재와 경쟁할 수 있는가라는 좌담회에서 국회의원 鄭昌和씨(상공분과위원)는 금년 7월부터는 모든 제품의 80%가 수입자유화될 예정이며 이중 달걀도 수입자유화 품목으로 내정되었다고 전하면서 국산달걀의 표면이 불결해 국내 외국인들이 이용을 많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수입달걀과의 경쟁에서 이기려면 양계업자는 수익원을 들여 살균소득시설을 갖춰야 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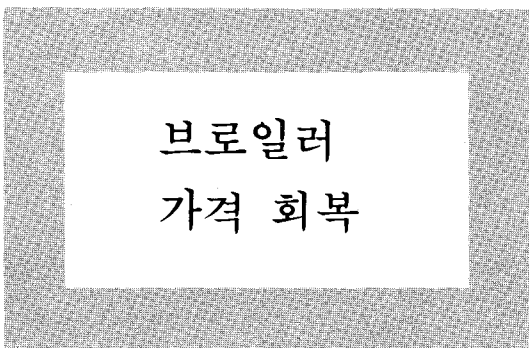


데 현실적으로는 실현하기가 어려운 문제라는 단서도 있었는데 외국인은 불결해서 먹지 않는 달걀을 우리 소비자들이 먹고 있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 양계인으로서 민망하지 않을 수 없다.

금년에 한국냉장(주)에서 하루 30여만개를 처리할 수 있는 GP 센터를 정부의 용자를 받아 시행한다고 하니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하루속히 계란에 대한 처리기준이 정해져 기준에 맞는 품질높은 위생계란만이 시판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닭고기의 경우에도 큰 차이는 없다. 도계장에 냉장시설이 거의 없어 물량조절이나 육질향상을 기할 수도 없으며 아침 7시까지 배달해야 하는 어려움에다 20℃ 상온에서 유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형편이다. 60~70%의 물량이 위탁도계로 그것도 500수 단위로 도계를 하기 때문에 연속작업이 이루어질 수 없어 도계시설능력의 반밖에 처리하지 못하는 비능률적인 운영을 하는 딱한 형편이다.

유통주체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도계장은 도태될 것이고 닭을 구입해서 상품화하여 판매전략에 의해 판매해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으로 성장해나가야 할 것이다. 수입개방의 물결에 앞서 국내생산, 처리, 유통, 소비부문의 재정비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브로일러가격이 회복됨에 따라 부화업체에게 지 서서히 주름살이 퍼지기 시작하고 있다.

12월의 육계용 전기사료가 1만 8천톤 이하



로 감소되었고 1월은 이보다도 약간 더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전기사료 2만톤 또는 1만 8천톤 이하가 되기를 기다리고 입식을 안하던 육계사육자들의 때가 돌아왔다.

9월말이후 3개월간 약 36만수의 종계가 감소하였으나 아직도 생산잠재력은 충분하기 때문에 입식 과열이 되지 않을까 염려된다. 매월 10일간격으로 조사되는 사료생산량을 참고하여 입식을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다.

양계산업이 이제는 전업화되어 만수 이상을 사육하는 1,047개 농장에서 우리나라 전체 닭의 절반인(47.2%) 2천 3백22만 8천 수를 기르고 있으며 농가부업규모인 천수 이하는 전체 닭수수의 5.1%에 불과하다. 다시말하면 농가부업을 제외한 천수 이상의 양계인은 7,455가구이며 3천수 이상을 기준하면 4,708 호로 이들이 기르는 닭은 84.8%인 4천 178만 3천수에 이른다. 80년후의 채란업계의 불경기가 규모의 대형화를 촉진하는 결과로 작용했다.

다행한 것은 대군기업양계인들이 뜻을 모아 앞으로 가격안정에 적극 참여하기로 한 것은 새해 양계업계의 밝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 닭의 50%를 기르는 1,047명이 협회를 중심으로 단합할 때 양계업계는 더욱 밝아질 수 있을 것이다

닭사육규모별 사육가구수

구분	년도별		80		81		82		83	
1~19 수	667,621	96.45	614,940	97.86	605,430	97.9	527,410	90.41		
20~49	11,957	1.74	2,920	0.46	2,790	0.45	2,340	0.43		
50~199	1,041	0.15	402	0.06	482	0.08	360	0.07		
200~499	916	0.13	510	0.08	293	0.05	232	0.04		
500~999	1,673	0.24	1,074	0.16	891	0.14	572	0.11		
소 계	683,208	98.71	619,846	98.59	609,886	98.62	530,914	91.06		
1,000~1,499	1,759	0.25	1,330	0.20	1,156	0.19	764	0.14		
1,500~1,999	1,229	0.18	941	0.15	908	0.15	603	0.11		
2,000~2,999	2,171	0.31	1,945	0.31	1,730	0.28	1,380	0.26		
3,000~4,999	1,972	0.28	2,703	0.42	2,199	0.36	1,899	0.35		
5,000~9,999	1,272	0.18	1,587	0.24	1,801	0.29	1,762	0.33		
소 계	8,403	1.2	8,506	1.32	7,794	1.26	6,408	1.19		
10,000~29,999	608	0.09	576	0.08	685	0.11	905	0.17		
30,000~49,999			56	0.01	68	0.01	90	0.02		
50,000 이상			26		30		52	0.01		
소 계	608	0.09	658	0.09	783	0.12	1,047	0.2		
계	692,219	100	628,380	100	618,463	100	538,369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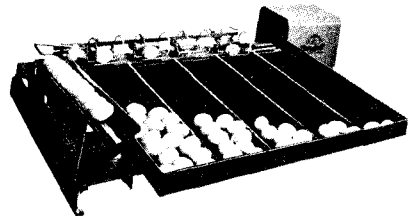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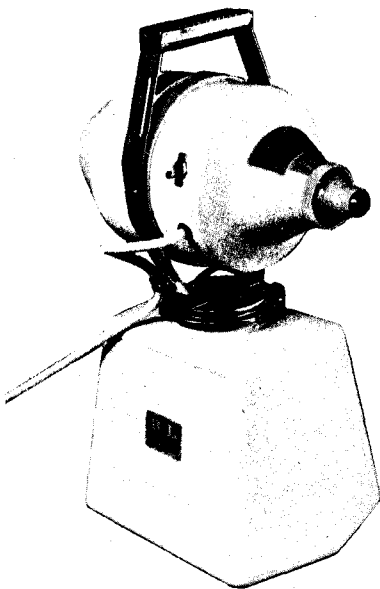
년도별 닭사육규모별 마리수

구분	년도별		80 (9월)		81		82		83	
1~9 수	3,534	8.0	2,538	5.9	2,387	5.1	1,917	3.9		
20~49	173	0.4	72	0.2	67	0.1	58	0.1		
50~119	66	0.1	32	0.1	42	0.1	32	0.1		
200~499	185	0.4	170	0.4	99	0.2	77	0.2		
500~999	873	1.9	754	1.7	629	1.4	404	0.8		
소 계	4,830	10.8	3,566	8.3	3,224	6.9	2,488	5.1		
1,000~1,499	1,579	3.5	1,484	3.5	1,298	2.8	855	1.7		
1,500~1,999	1,613	3.6	1,556	3.6	1,510	3.2	984	2.0		
2,000~2,999	4,261	9.6	4,441	10.3	3,946	8.6	3,131	6.4		
3,000~4,999	7,747	17.5	7,527	17.5	8,067	17.3	6,917	14.0		
5,000~9,999	10,642	24.0	10,369	24.1	11,999	25.8	11,637	23.6		
소 계	25,842	58.2	25,377	59	26,820	57.7	23,524	47.7		
10,000~29,999	8,539	19.3	8,369	19.5	10,177	21.8	13,768	28.0		
30,000~49,999	1,663	3.7	1,993	4.6	2,491	5.3	3,244	6.6		
50,000 이상	3,557	8.0	3,696	8.6	3,880	8.3	6,216	12.6		
소 계	13,759	31.0	14,058	32.7	16,548	35.4	23,228	47.2		
계	44,222	100	42,999	100	46,592	100	49,239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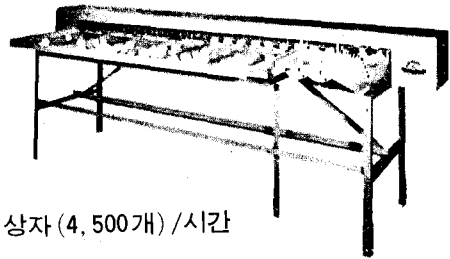
닭 월령별 용도별 수수

	80	81	82	83
3개월미만		15,910	20,073	21,276,845
3~6개월		5,294	4,716	4,621,855
6개월이상	24,007	21,796	21,802	23,340,736
계	40,130	42,999	46,592	49,239,436
종 계		1,752	1,934	2,224,919
산란 계	27,407	26,838	27,091	28,271,428
육용 계	12,723	11,768	15,070	16,736,829
검용 계		2,641	2,496	2,006,260
계	40,130	42,999	46,592	49,239,436

에고마틱(美) 계란선별기는
정확하고 효율적인 선별을 보
증합니다.



6 상자 (2,300개) / 시간



12상자 (4,500개) / 시간

루트로웰(美) 분무기보다
더 좋은 것은 아직 없습니다.

- 6ℓ 용량의 큰 약통
- 95% 이상을 50미크론 이하의 미립자
로 30m 까지 원거리 분무



과학시스템

서울 · 성동구 능동 246-10

☎ 445-0212, 1886

공장 : 서울 · 동대문구 신내동 436